

30 자동차제조 개선반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성별	남성	나이	44세	직종	자동차조립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근로자 ○○○은 1995년 9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2000년 2월까지 조립부 생산과 의장반에서 조립업무를 하였고 이후 조립부 생산과 개선반에서 근무하였다. 2012년 10월 병원에서 건강검진결과 위암판정을 받고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은 1995년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4년 3개월간 자동차 의장조립업무를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은 전장 배선의 정리 작업, 자동차 내부의 단열, 방음을 위한 인슐레이터의 부착작업, 자동차 내부 구멍에 마개 부착, 도어의 탈거, 연료 파이프의 부착작업 등으로 주로 임팩터를 이용한 작업이었다. 그 후 개선반으로 옮겨 12년 9개월간 시설물의 개보수, 공구대, 적재대, 물류용 팔렛트 등 생산업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 작업은 철재의 절단, 가공, 용접, 도색 등이었다. 용접작업은 다소 유동적이나 매일 하였고 평균 수행시간은 3~4시간으로 아크용접, CO2 용접, 아세틸렌용접을 하였으며 개선반 내에서는 주로 CO2 용접을 하고 현장에서는 아크용접을 하였다. 현장에서 용접하거나 기존 설비 또는 물품을 보수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표면에 묻어있는 도료를 그라인딩하여 제거하기도 하지만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하기도 하였다.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 중 두 번째로 많은 작업은 도장작업이었다. 주당 2~3회 가량 도장작업 하였는데 작업시간은 30분에서 3시간 내외 소요되었으며 개선반 앞의 옥외에서 에어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다. 생산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붓으로 하는 터치업 도장을 하였다. 개선반 내에 보유하고 있는 가공기계로 전단기, 절곡기, Band Saw, 드릴링기, 밀링기 및 선반이 있으며 가공 시 절삭유를 사용하나 사용빈도는 낮았다. 용접작업에 대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평가에는 근로자의 질병인 위암 발생의 유해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도장작업 시에는 도료의 안료성분 중의 하나인 무기 납화합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노출 수준을 추정해 본 결과 추정노출 수준은 노출기준의 1%미만이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분진, 중금속)

5 의학적 소견

○○○은 2005년에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만성 표재성 위염 소견 있어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 받아 왔다. 2012년 10월 시행한 건강검진 위내시경에서 위전정부에 고이형성을 동반한 관상선종이 관찰되어 2012년 11월 다시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위전정부에 조기 위암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위점막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1995년 9월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4년3개월간 자동차 의장조립 업무를, 그리고 12년 9개월간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직무분석 및 작업환경 고찰결과 위암 발생에 충분한 증거를 가진 직업성유해인자(전리방사선, 고무제조업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며, 제한된 증거를 가진 무기 납에도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위암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끝.